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탄력

전주시,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6년 연속 선정

전주시가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 에너지전환을 위해 내년도 태양광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키로 했다.

시는 정부의 2050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정책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공모에 6년 연속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특정 지역 공공·상업·주택시설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시는 국비 8억 7300만 원을 확보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 국비를 포함해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설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 지역은 풍남동과 동서·서서학동, 중화산1·2동으로, 시는 주택용 태양광 234개소(705kw)와 태양열 12개소(163㎡), 지열 7개소(122kw)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연간 1247MW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285.25tce의 화석에너지 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총 1068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4333MW의 에너지절감 및 1289tce의 화석에너지 대체효과 등을 거두고 있다.

김종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보급, 에너지저장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다. 앞으로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발맞추 주민과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확대해 탄소중립도시를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전라고총동창회,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위한 협약 체결

전라고등학교총동창회(회장 최병선)가 전주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주시와 전라고총동창회는 22일 백리항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성공적 정착 등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전라고는 지난 1968년 개교 이래 자율·단결·정진의 교훈으로 50여 년의 전통을 이어오며 2만여 명의 인재를 배출했으며, 총동창회는 보육한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회원들의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발전에 힘을 보태나갈 예정이다.

최병선 전라고총동창회 회장은 이날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주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이 활력을 되찾고, 모두가 행복한 전주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누구나 화창 시절의 즐거운 추억을 가슴에 품고 산다. 그 시절 순수했던 마음으로 고향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 그리고 지역발전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고 계신 전라고 총동창회 회원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회원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고총동창회를 이끄는 최병선 회장은 전북치대 제13대 동창회장(2009~2011년)과 (사)한국산악회 창립 70주년 기념 에베레스트(8848m) 원정 단장(2015년), 전라북도 자연거연맹 회장(2016년)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쳐왔으며, 현재 (사)희망나눔재단 대표와 전라북도체육회 부회장, 전북대 총동창회장도 겸직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DB CNS 자동차손해사정, 취약계층 위한 백미 후원



이대진 DB CNS 자동차손해사정 대표는 22일 전주시청을 찾아 취약계층을 위한 백미(10Kg) 200포(700만 원 상당)를 기부했다.

DB CNS 자동차손해사정(주)(대표 이대진)은 22일 전주시청을 찾아 취약계층을 위한 백미(10Kg) 200포(700만 원 상당)를 기부했다.

이날 후원한 백미 200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과 사회복지 시설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대진 DB CNS 자동차손해사정(주)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의미있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DB CNS 자동차손해사정(주)는 지난 겨울에도 전주시 취약계층을 위해 이불을 후원하는 등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부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출: 전주시 제공)

선화당

관풍각

내아

아동 학대 없는 전주시 함께 만든다

아동 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갖고 유공자 표창·후원금 전달 등 진행

전주시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와 힘을 하나로 모아 아동 학대 없는 도시를 함께 만들어가기로 했다.

시는 22일 시청 강당에서 아동 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과 아동 학대 예방주간(11월 19일~25일)을 맞아 '아동 학대 없는 전주시'를 주제로 '2023 아동 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아동 학대 예방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과 학대 피해 아동 후원금 전달, 아동 학대 예방 샌드아트 공연 등이 펼쳐졌다. 참석자들은 또 아동학대에 방 다짐 퍼포먼스 등을 통해 아동 학대 없는 전주시를 함께 만들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앞서 시는 그동안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힘써왔다. 또, 유관기관인 검찰, 경찰, 소방서, 교육청, 보호시설, 의료기관과 연계·협력하며 전문체계를 강화해 피해아동 보호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보호를 위해 가족 회복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신체·정신적 치료는 물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 가구 회복 중심의 심층 사례 관리를 강화했다. 또, 근본적인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우리는 아동학대 전 과정 공

공통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규모 확대 및 가족기능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학대 피해 아동을 치료하고 보호해왔다. 학대 피해 아동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의 노력을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기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가져

전주시가 모든 시민이 보편적인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인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평생학습 5개년 발전계획을 내놓았다.

시는 22일 전주시평생학습관에서 최라기 기획조정국장과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평생학습 유관기관 기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연구는 평생학습도시 전주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계획 및 전라북도 평생학습 중장기진흥계획과 방향을 맞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사업과 지역대학과의 협력 방안, 특수시책 개발 등의 방안을 담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용역을 맡은 권인택 전북대학교 교수는 오는 2028년까지 적용할 전주시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보편적 평생학습 체계 구축 △인문화도시로의 체제화 및 고도화 △고등평생교육 전문화 및 체제 구축 △평생학습 권역화 및 확장성 강화 △디지털 평생학습 체제 구축의 5대 발전 목표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그간 수립해온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전주시 평생학습의 미래 방향성을 함께 모색했다.

시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민선8기 시정 목표인 '강한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에 걸맞은 미래지향적인 평생학습을 구현하고,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평생

학습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최라기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이날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욕구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정책이 개발하고, 전주지역 현실에 맞는 평생학습 체계가 구축돼 효과적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